

‘토종 OS’ 티맥스, MS 대체시대 연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남도, 지난해 9월 지자체 첫 국산 OS 도입 5억원 절감 문서 10만5천건 오류 없이 처리...국산 SW 신뢰도 높아 오늘 광주 DJ센터서 로드쇼...차세대 IT 플랫폼 기술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전자문서시스템에 국산 데이터베이스(DBMS) 체제를 도입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전자문서 고도화 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자문서시스템에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운용한 결과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 사업에 국산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결정하게 된 것은 외국산 데이

터베이스와 비교해 도입 가격은 약 1억 5000만원, 유지보수 비용도 약 3억5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동안 외국산에 밀려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전남도의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해 본 사례가 없었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도입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도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9월부터 지금까지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전자문서시스템은 약 10만5000건의

전자문서를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했고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호환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어려운 결정은 국내 대표 시스템SW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대표 장인수)의 기술력과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했다.

티맥스소프트는 1997년 설립 이후 기업 정보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토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Total Enterprise SW)’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SW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금융·공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시스템 SW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OS 개발을 위해 설립한 티맥스오에스가 자체 개발한 토종 PC 운영체제 ‘TmaxOS’의 시범 버전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형석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국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에도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티맥스소프트는 5월 한 달동안 지역 SW 시장 및 고객을 위한 ‘티맥스 로드쇼 2016’을 개최하고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등 미래선도 핵심기술을 통한 새로운 IT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은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모든 IT환경이 통합되고 지능화되는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 IT 플랫폼 기반 기술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티맥스의 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기술을 포함해 향후 모바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IT 환경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TmaxOS’를 소개해 새로운 IT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로드쇼에서는 DB 전환을 원



티맥스소프트 모델들이 티맥스오에스가 자체개발한 토종 PC 운영체제인 ‘TmaxOS’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제공)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DB 마이그레이션 가이드’에 대한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출시된 미들웨어 솔루션 ‘웹투비 5’와 ‘제우스 8’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솔루션인 ‘제타데이터 3’에 대한 상세한 제품 소개도 예정하고 있다.

장인수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이번 지역로드쇼는 지역 고객들에게 티맥스만의

미래 선도 핵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가갈 새로운 IT 시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핵심”이라며, “광역본부 중심의 지역 내 많은 고객들이 티맥스의 제품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일조권 침해 없다...흙집내기 즉각 중단하라”

농성주택조합 “상록회관 복측 99개 주택 환경변화 미미” 지방의원·환경단체 주장 반박...항의 방문·자료 요청도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농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최근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의원 과 환경단체에 반발하고 있다.

23일 광주 농성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영철)에 따르면 농성지역주택조합 729명 조합원은 일부 시·구 의원과 환경단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흙집내기를 그만둘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김옥수 광주시구의

회 의원이 제기한 ‘광주시의 허가대로 31층 아파트가 신축되면 상록회관 인근 주택 100여 세대의 일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으며 이 중 12세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조권의 수인한도마저 침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주체인 농성지역주택조합은 10개 동 지하2층, 지상 29층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광주 농성동 공동주택 신축에 의한 단지 주변 일조영향 평가를 받아 분석 결과를 광주시에 제출한바 있다.

일조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인 수인 한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해당되며 이는 주거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모든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조합원들은 “실제로 단지 주변의 일조영향권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복측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의 단독주택 및 빌라 등 99개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일조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장 일조환경이 열악한 정북방향에 양산강 홍수통제소가 인접해있고 이를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일조환경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99개 주택이 마치 전체 일조권을 잃는 주택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상록회관 부지의 경우 당초 준주거지역만으로도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종상향 없이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약 1200세대의 4층 이하의 저밀도 공동주택 및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거쳐 빛꽃 군락지를 보존하기 위해 세대수를 842세대로 조정하면서 공영,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을 당초 6602㎡에서 최종 1만2398㎡를 기부채납했다”며 “특히 기부채납한 부지의 경우 용적률 298.69%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그 추정가치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지난 20일 김옥수 의원 사무실로 항의방문을 했으며, 현재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농성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광주은행-자산공사 “지역과 동반성장”

금융거래 확대 등 업무 협약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영업전략본부 송중욱 부행장(사진 왼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류재명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

창출, 지역금융 선순환을 위한 지역은행과 금융거래 확대, 공매 잔대금 가상계좌 수납 및 대출상품 운영, 은행 CD기 설치, 부실채권 매각,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로 했다.

송중욱 부행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5.25 (+7.58)	금리 (국고채 3년) 1.47% (0.00)
↑ 코스닥 691.00 (+6.08)	↓ 환율 (USD) 1182.90원 (-7.30)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색은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들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연합건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광주·전남 프리모 남가발

대산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